

만농홍정표선생사진전

제주사람들의 삶Ⅱ



The Life of Che-ju PeopleⅡ

Photos by Hong, Jŏng-Pyo

Date : 1995. 4. 29. ~ 1995. 5. 15.

Station : Tamra Moksŏkwŏn Gallery

Sponsorship : Cheju National University Museum

Management : Tamra Moksŏkwŏn

제주사람들의 삶Ⅱ
만농 홍정표선생 사진전

1995. 4. 29. ~ 1995. 5. 15.

주최 : 제주대학교박물관 주관 : 탐라목석원

晩農先生 사진전에 붙여

晩農 洪貞杓 선생님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주의 歷史와 文化에 깊은
조예를 갖고 계셨습니다. 남들이 돌보지 않을 때, 여기저기 다니시며 귀한
제주도 文化財를 수집하셨으며, 따라서 映像美만을 추구하는 어느 사진
작가와 선생님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금번
선생님 작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는 바,
제주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면 전부 카메라에 담으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선생님은 별다른 사진 장비 없이 표준렌즈 카메라만 들고서
35밀리 필름만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사진의 技巧나 藝術美만을 중시한 작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品格과 眞實美가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짙게 우러나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생님은 사진
작가에게는 물론 사진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3년 되어 두번째 전시회를 목석원에서 열게 됨을
제주도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이러한 전시회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주지 않으신 白雲哲 선생께
우리 박물관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 4. 29.

두번째 만농 선생 사진전을 열면서

한 이태전 일로 기억된다.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셨던 만농 선생이 간혹 나를 찾으실때나 연락을 주시던 사모님께서 그분이 타계하신지 일년이 지난 어느날 뜻밖에 이런 전화를 주셨다.

백원장! 여기 만농 선생께서 남겨둔 책들이며
몇가지 유품들이 있으니 와서 가져가게! 사모님, 고맙습니다만
생전에 그분께서 직접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것들이 많으니 이왕이면
그 곳에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기증품들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평소 저를 아껴주시던 사모님께서 특별히 생각해서 주신
전화였지만 나는 사양할 수 밖에 없었다. 얼른 달려가서 사진에 관한
자료들만 챙겨서 갖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남의 소중한 유품들을
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그런 일이 있는 얼마후 제주대학교 박물관 이청규 관장과
고광민 학예관이 나를 찾아와 만농 선생의 사진 인화와 사진집 발간을
위한 편집 디자인은 물론 목석원에서 만농 선생 초대전까지 모든 작업들을
나에게 의뢰했다. 「제주사람들의 삶」1집이 발간되자 둘째아들 홍성오 선생이
보관하고 있었던 2,000컷이 넘는 필름 원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 가운데 100여컷은 교육박물관에 기증됐다. 일부는 원판이 없어
소형사진으로만 남게 될뻔 했던 작품들이 드디어 이제야 제모습들을
찾게 됐으니 한동안 잃어버렸던 내 사진들을 다시 찾은 것처럼 감개무량하다.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제주의 아이들」이라는 주제아래
사진집과 개관기념 사진기획전이 마련됐고,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제주사람들의 삶」2집 발간을 위한 작업들이 강창언 학예연구원의 도움을
받으며 동시에 진행됐다.

1995년 2월 15일.

드디어 한날 한시에 쌍둥이(?) 만농 선생 사진집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으니
비록 고인께서 이 책을 못보시고 떠나셨지만 이해타산없이 박물관에 기증해
주신 사모님과 자제분들의 알뜰한 정성으로 인해 또다시 사진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늦게 농사를 지었어도 이처럼 풍부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니, 만농(晩農)이란 아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

게다가 지난 12월 21일.

「세계 사진사」를 집필한 류마니 선생으로부터 만농 선생의 이력과
오리지날 프린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 유족들은 물론이요,
두 박물관의 뜻 깊은 행사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제주사진계의 커다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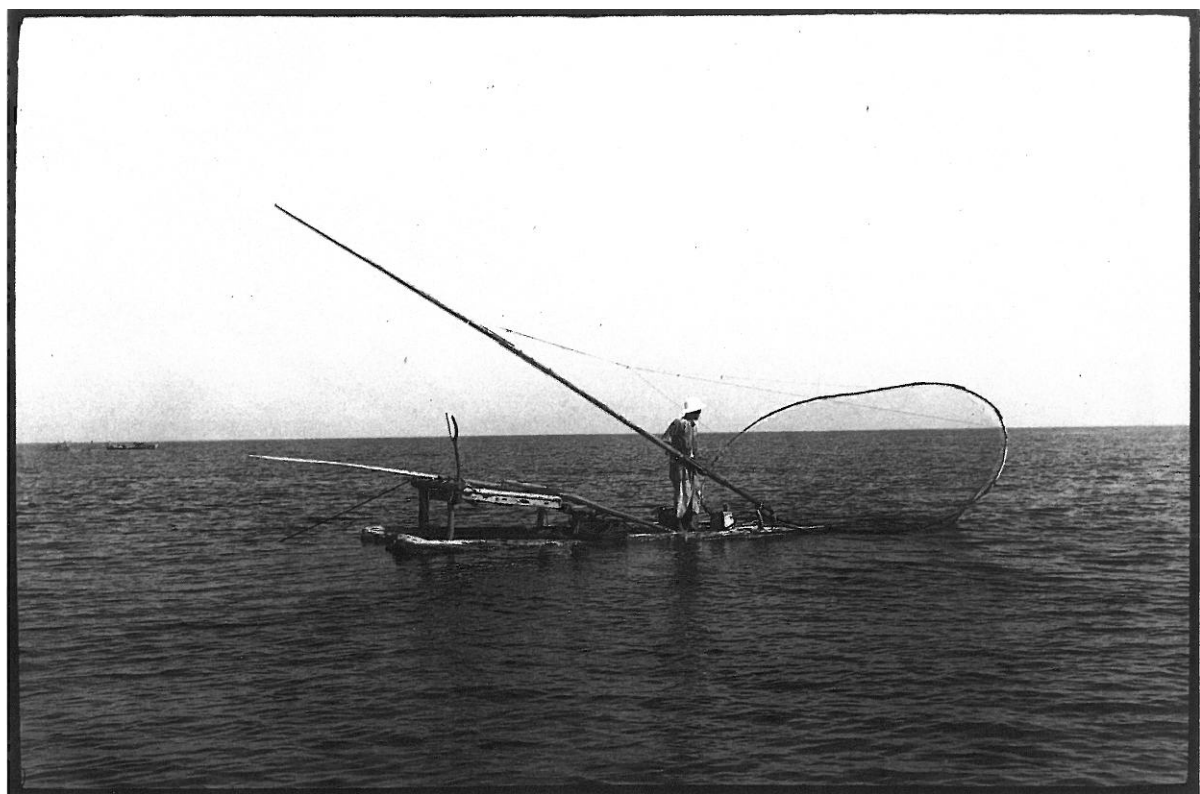
1950년대의 사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회귀성만을 갖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진들은 회귀성은 물론이요, 고유성과 예술성을 고루
지닌 아주 귀한 사진들이다. 이런 사진들을 가리켜 소위 평범속에
비범한 작품이라 하는 것이요, 바로 정직한 기록사진만이 가질수 있는 저력이다.
그런가하면 만농 선생의 일부 사진들은 제주의 사진문화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회귀한 사진들을 문화재로 지정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효시가 됐으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설령 지금 당장 그런 가치를 부여한다해도 아직은 선진국처럼
과학적으로 보존하기엔 시설면에서 너무나 빈약한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먼저 류마니 선생께 만농 선생 사진집을 보내면서 의견을 타진했던 것이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역사적인 세계사진들을 완벽한 시설에 보존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진국에 12×16인치 흑백사진 50점이 영구히 소장케 된 것이다. 프랑스는 150여년 전에 처음으로 사진을 발명한 나라다. 그로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진국에서는 사진사에 남을 작가들의 작품들을 망라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사진계가 사진박물관으로서의 그 대단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흙냄새가 물씬나는 사진들,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주는 제주다운 모습들을 본격적으로 잃어가기 시작한다. 혼자서 느끼는 감정일지는 몰라도 만농 선생의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우(愚)를 동반한 강풍이 몰아칠 폭풍전야, 바로 그런 적막감이 느껴온다. 한평생 청빈한 교육자로 집 한 채 없이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서양문화의 태풍으로 인해 어처구니없이 사라질 우리의 민속문화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섬 전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비록 가난했지만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었던 우리네의 일상생활들을 있는 그대로 사진으로 기록했던 것은 당대는 물론 제주의 후손들에게 크나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낡아데로 낡아버린 원판들, 이 필름들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인화된 만농 선생의 작품들을 서로 보존하는 의미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그리고 탐라 목석원에 같은 내용의 사진들을 각각 보관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만농 선생의 사진들은 이 지구촌(地球村) 어디엔가 오래오래 남아 있으면서 특히 사진하는 사람들을 위해 커다란 반석(磐石)이 되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그 비범한 제주사랑, 기록사랑의 옥고를 보내주신 김영돈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린다.

제주사람들의 삶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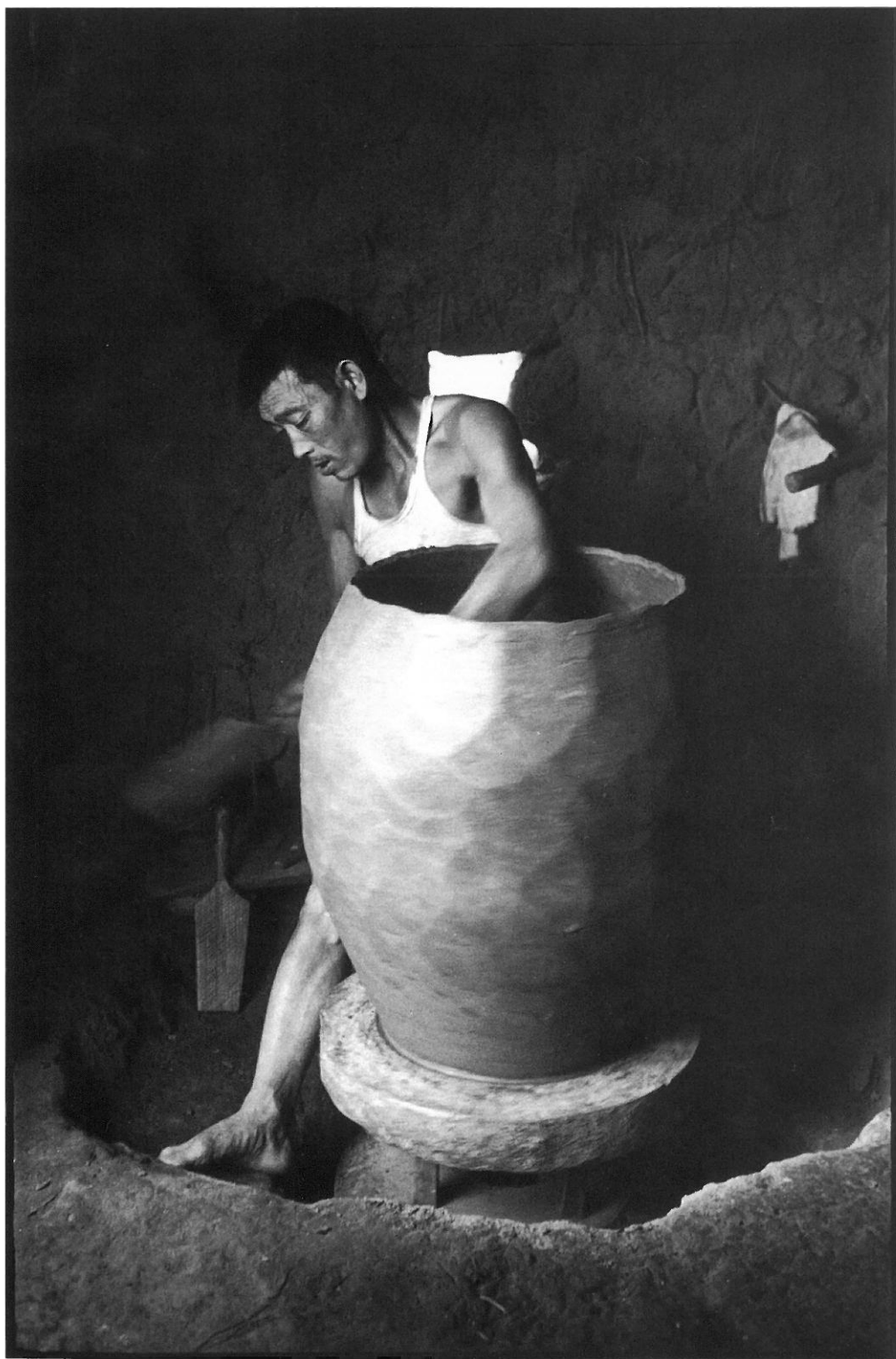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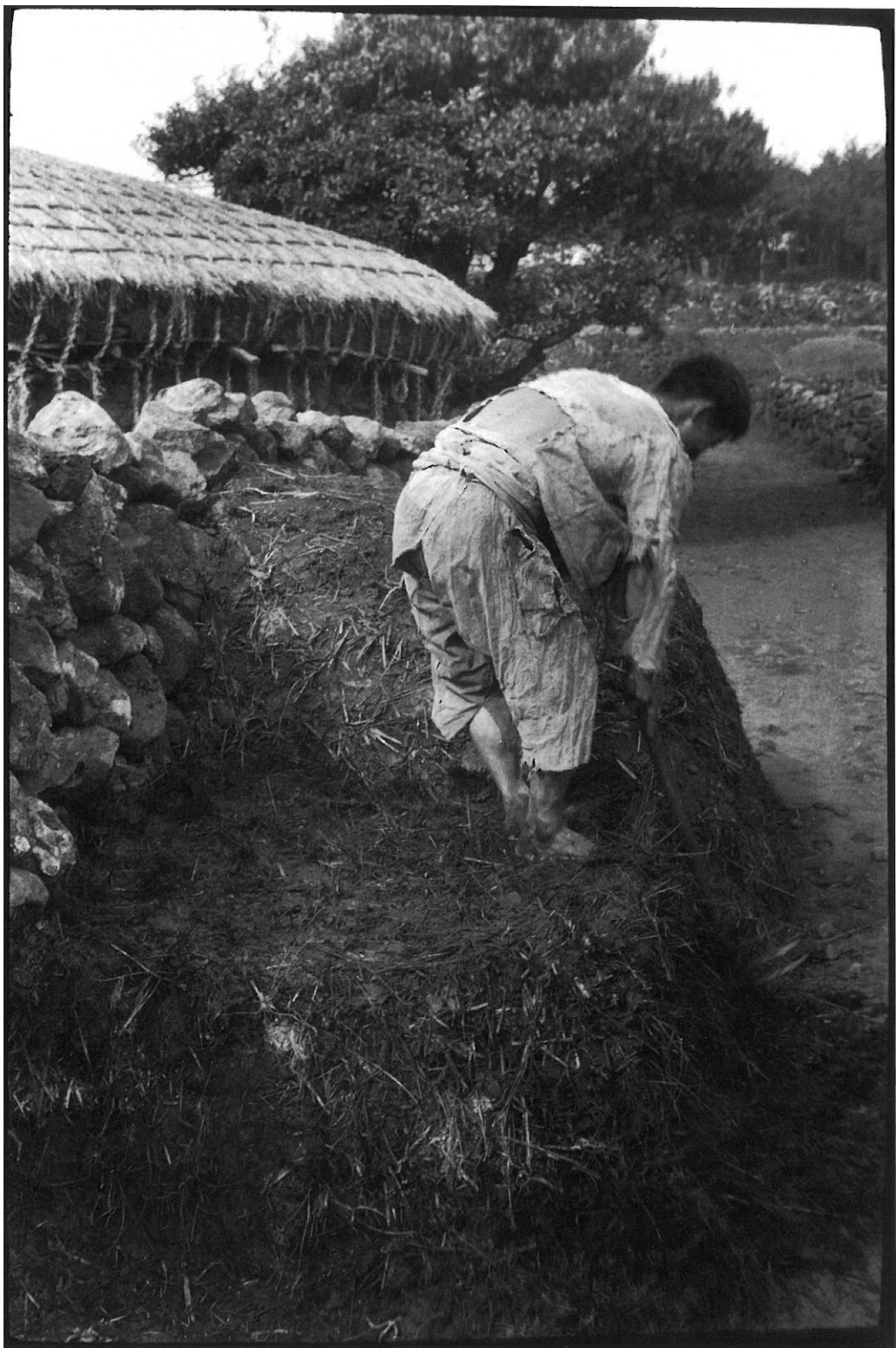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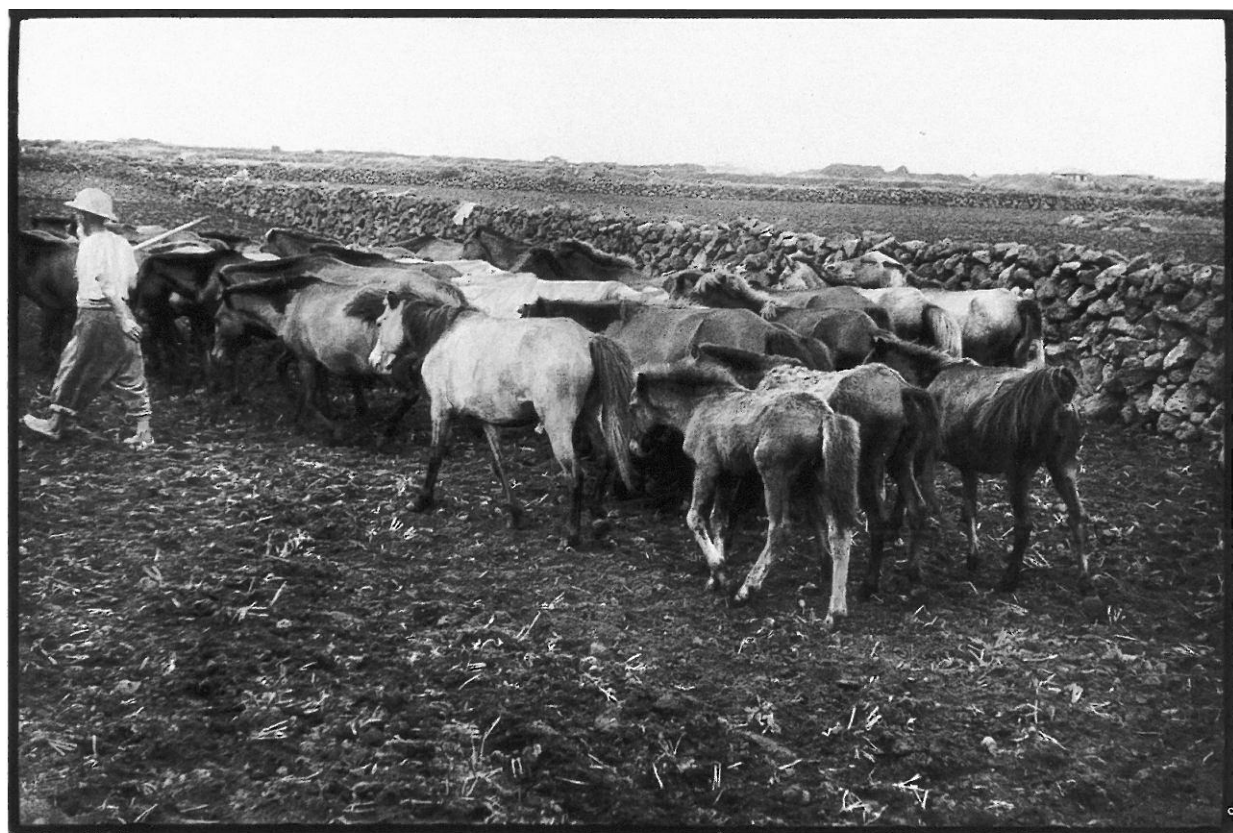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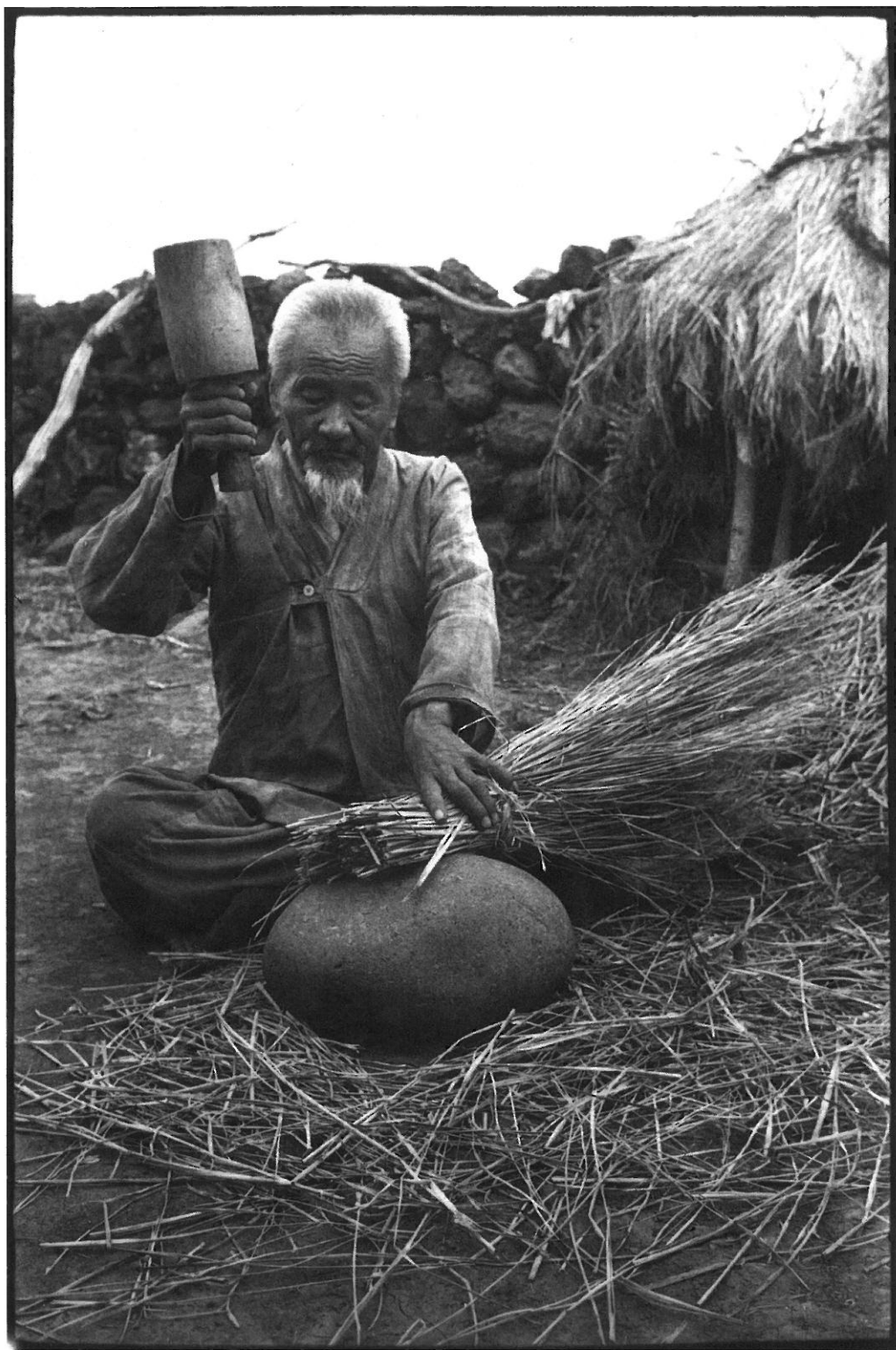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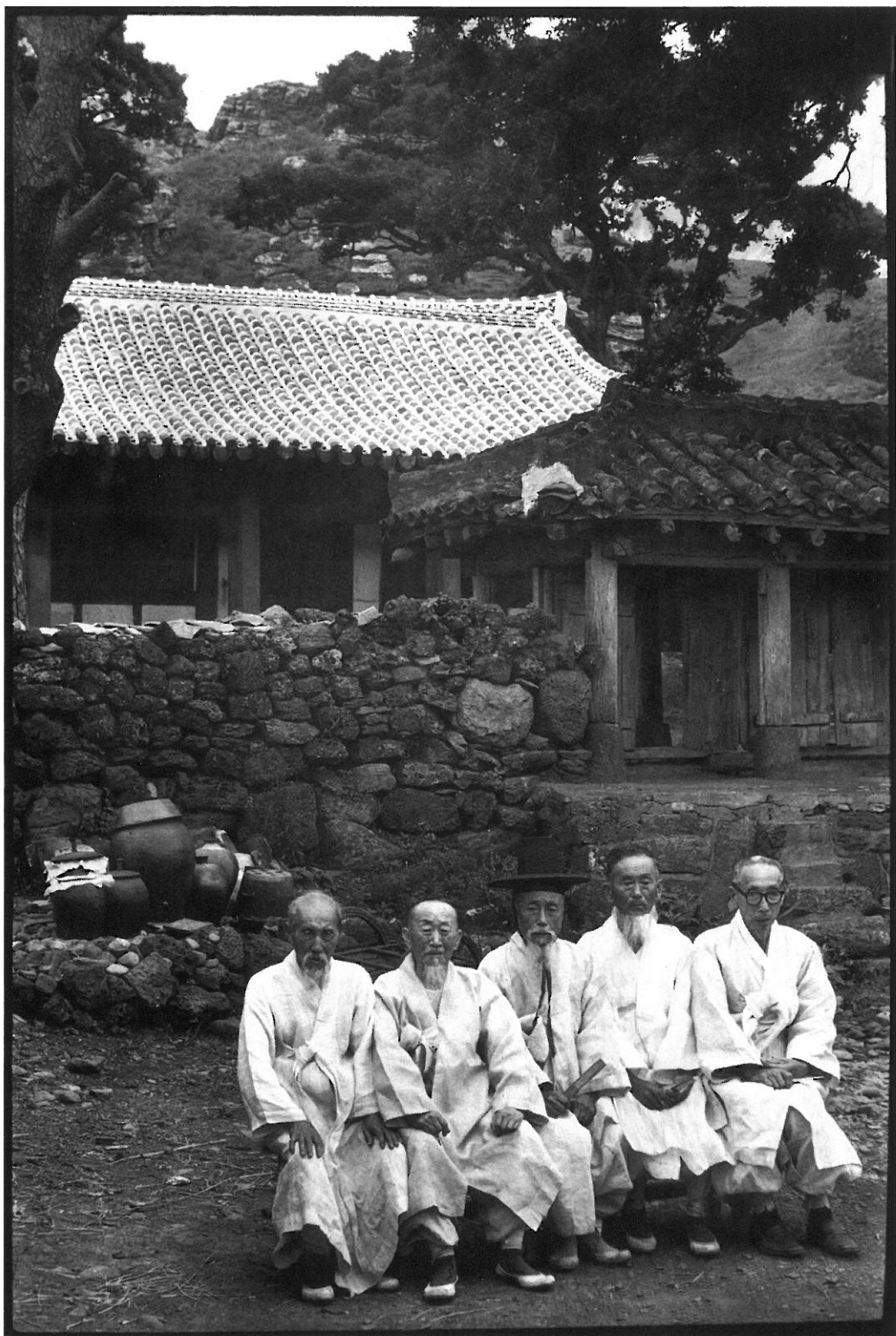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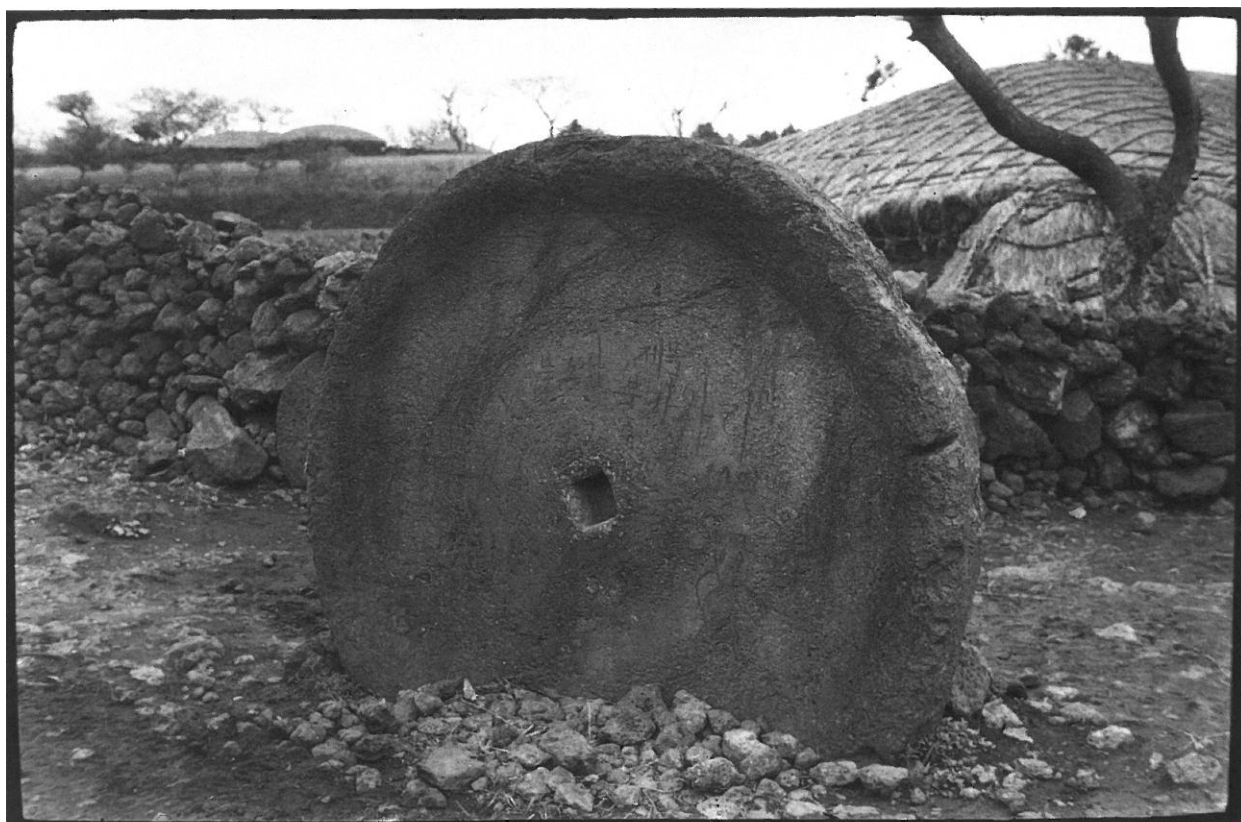












그 非凡한 濟州사랑, 記錄사랑 : 金榮敦

그 非凡한 濟州사랑, 記錄사랑

金 榮 墩(민속학자)

晩農 洪貞杓 선생(1907~1991)의 지극한 濟州愛와 藝術魂은 한 마디로 비범하다.

사진예술을 통하여 濟州人들의 사람살이 전반을 기록화하려던 願力은

범상하지 않을 뿐더러, 그 성과가 실로 육중하다.

1993년, 그의 진중한 사진을 기증받은 濟州大學校博物館에서 불란서에까지 널리

알려진사진가 白雲哲씨의 편집에 따라 「晩農洪貞杓先生寫眞集 : 제주사람들의 삶」

(로알프로세스刊)이 펴내어졌을 때, 그의 비범한 濟州愛와 藝術魂은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드높은 濟州사랑을 바탕으로 예술과 학문이 조화롭게 接木된 珍重한

작품 한 장 한 장이 담긴 「제주사람들의 삶」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의 드높은 人類愛와

藝術魂에 압도되었다. 또한, 사람살이의 이모저모를 애정을 담백 쏟으면서 진솔하게

한 장 한 장 찍어둔다는 게 몇백년 기나긴 세월이 흐르지 않더라도 이렇게도 보배로운

값어치를 지니게 될 줄 우리는 이미 덜 실감했거나, 실감했더라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연 晩農 선생은 위대한 선구자임을 새삼 확인했다.

사람의 願力이란 무서운 힘을 낳는가 보다. 1993년에 「제주사람들의 삶」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는 晩農 선생의 선구자적 자세와 사진예술에 대한 비범한 안목에 경탄하던 중,

그의 畵息들에 따라서 선생의 혼이 배인 필름들이 다시 쏟아져 나왔다.

우리 모두의 감격은 크다.

여기 전시되는 작품들은 그 일부인바, 격조 높은 濟州愛와 사진기록을 드높이 기리는

白雲哲 원장의 정성에 따라서 잘 가다듬어지고 이렇게 햇빛을 본다. 느닷없이

橫財나 하듯, 새로 발견된 晩農 선생의 필름 역시 썩 가멸지고 진귀하다는 견해들이다.

때때로 절박한 필요에 따라 지난날의 자그만 자료 한 가지 얻기에도 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오늘의 실정에서 얼마나 萬幸이라. 그리하여 濟州大學校博物館에서도

「제주사람들의 삶」(1993)의 續篇을 펴낸다는 소식ियो, 濟州敎育博物館에서 역시

역사적인 개관에 즈음하여 제주 어린이들의 성장과 관련된

晩農 선생의 사진집이 꾸며진다니 썩 반갑다.

여기 전시되는 작품들은 먼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의 이 고장

사람살이의 이런저런 모습이다. 지금 50대 중반 이후의 제주인들이라면 다들 보고,

듣고, 경험하던, 평범한 被寫體들이어서, 그 당시로서는 그다지 신기롭거나 희귀할

것도 없는, 극히 일상적인 제주인들의 사람살이의 모습ियो,

늘 가까이에서 밤낮으로 대하던 대상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衆流라 할까, 세상은 물 흐르듯 변하는 게 원칙이어서, 여기

전시되는 작품들 대부분도 벌써 옛날의 風情이 되고만 게 흔하다. 모자에서 신발까지

가죽옷으로 치장한 모습을 지금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남녀 세 사람이 ‘돌방에’

(연자매)를 쪼는 광경 역시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물질하러 나가는

해녀무리를 천천히 드러다볼 때면 在來海女服의 변천이 어렵하다. 더욱이나 해녀가

소살(작살)로 고기를 쏘는 찰나를 포착하느라고 선생은 얼마나 집념을 불태웠으랴.

한 장 한 장의 사진 속에는 백 장이 넘는 글로써 애써 표현하려 해도 맞설 수 없는

실상과 이야기가 생생히 깔렸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晩農 선생이 소담스런 열매를 이렇게 알알이 맺었음을 남다른

願力과 情熱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는 일.

이 세상의 사람살이와 大自然의 섭리를 남달리 사랑하셨고, 民俗에 대한 깊은

애정과 평생을 綜合藝術的으로 사셨으므로 被寫體를 고르는 안목과 이를 앵글에

담는 構圖가 범상치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한평생이 종합예술적이었음은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濟州美術協會, 瀛洲研墨會, 濟州寫眞協會, 濟州山岳會 등을 꾸미고 주도하시면서 그림·글씨와 사진에 골몰하는 한편, 젊은이들의 의욕을 늘 부추기셨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늘 종합예술적이었으므로 지닌 性情 역시 다정다감했다. 와병하실 때 任東權 박사 등과 문병하여 두어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마당으로 나서자마자 터져나온 엄청난 오열은 이제도 귓전을 맴돈다.

여기에 전시된 작품들 하나하나가 그 당시로서는 召命感和 안목만 지녔더라면 누구나마 찍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살이임을 우리는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晩農 선생은 누구나마 필름에 담을 수 있는 예사로운 日常에 예사롭지 않은 애정을 담백 쏟으셨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를 만하다. 1950년대, 60년대라면 불과 30~40년전이니, 어디 오늘날과 멀리 동떨어진 먼 옛날인가.

우리는 대체로 기록에 약하다고들 하지만, 그는 오로지 당장 필름에 담아줘야 할 대상이라는 召命感和 美意識에서 순수하고 진득하게 찍어두신 게 이제 후학들로서는 진귀한 학술자료로서, 놀라운 構圖를 지닌 예술작품으로서, 보배로운 교육자료로서 보물을 대하듯 경이로울 뿐이다. 전국 어디에서 1950년대, 60년대의 한 지역의 사람살이의 이런저런 모습을 한 사람의 願力과 執念에 따라 이처럼 진귀하게 기록으로 남긴 사례가 있을까. 우리는 이제 선생의 유다른 發願과 召命과 人類愛와 藝術魂을 칭송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오늘날의 농어촌과 도시에서, 밭과 바다, 골목과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람살이의 모습과 山川을 필름과 비디오로 기록해 둘 교훈을 새삼 깨닫는다. 그 대상은 반드시 진귀한 데서만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될 터이니, 여기 전시되는 작품들만 보더라도 반드시 희한한 것들만 골랐던가.

만능 홍정표 선생은

1925년 제주농업학교를 졸업하여

1953년 한국대학(국제대학)법정학부 정경과 3년 수료.

1926년 조천보통학교 및 제주보통학교 교사로 역임,

마포중학교, 제주농업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현 한라전문대학 전신인

제주간호학교 등 도내외의 주요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으로 근무.

1955년 제주미술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1974년까지

문화재전문위원(제1분과), 제주문학협회 창립회장,

제주연목회와 제주사진협회 창립, 제주도문화유적 조사위원 등을 지냄.

1962년 녹조소성훈장(대통령), 1963년 제주도문화상,

1985년 서울신문 향토문화상 등을 수상.

1963년 제주도민요해설집을 출간한 것 외 다수의 논문이 있음.

1964년 서울 중앙공보관에서 사진전(1회). 1994년 「제주사람들의 삶」(1집)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출간, 탐라목석원에서 초대 사진전(2회). 1995년 「제주사람들의 삶Ⅱ」(2집)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출간, 탐라목석원에서 초대 사진전(3회). 「제주의 아이들」(3집)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출간 및 초대 사진전(4회). 프랑스 국립도서관 판화 및 사진국제 흑백사진 12"×16" 50점 소장

사진 : 홍정표
기획 : 이청규
글 : 김영돈
디자인 : 백운철
편집 : 강창언
자료정리 : 김보현
제판·인쇄 : (주)로알프로세스

